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현황

이기정 | 한양대학교 국제협력실장

I. 들어가며

21C는 흔히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진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각 부분과 지역을 네트워크화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보의 흐름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있다. 또 WTO 체제의 출범은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상품 및 서비스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어 이제는 경제활동에서 국경이 무의미 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이나 개인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수준은 세계의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에는 ‘대학교육이 경쟁사회의 요구를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2005년 47위, 2006년 41위 그리고 2007년에는 43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의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거시적으로 보면 무엇보다도 교육서비스를 국가 간 교역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WTO 체제의 출범과 세계적인 평가기관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은 최근 정부나 대학 역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시대적 요구로 변해버린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와 대학은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대학의 국제화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심지어 글로벌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과 고민은 이제 대학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 한국 고등교육은 국제화의 초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각 분야의 노력과 성과가 양적인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질적인 발전까지 이루어진다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미래가 그다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노력 및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려한다.

II.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노력

1.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Study Korea Project' 실시

정부는 교육수출의 경쟁력 제고, 유학 수지적자 구조의 개선, 해외 우수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고등교육체제 개선이라는 목표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Study Korea Project'를 발표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1)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

한국의 대학교육이 해외에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우선 국내대학의 해외 홍보를 위해 2001년부터 국제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연 10회 가량의 해외 유학박람회 개최를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처음 7~8개 대학이 참여하던 해외 유학박람회는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많을 경우에는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박람회가 되기도 한다. 유학박람회는 대량의 학생을 유치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지만 대학의 해외홍보, 현지 교육기관과의 교류 증대, 현지 교육시장 정보 수집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2) 한국어 과정 및 영어전용강좌 확대를 위한 지원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국내교육의 국제화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정부는 연간 13개(영어전용강좌 5개교, 한국어 과정 개설대학 8개교) 대학을 선정하여 약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영어전용강좌 증설과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이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각

대학들의 국제화 분야에서 하나의 모티브가 되고 있고, 2008년에는 지원 예산을 20억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Study Korea Project와 상관없이 국내 대학들은 2000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여 이미 대학별로 유치방안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 서울대와 한양대는 입학처에서 실시하던 외국인 특별전형 업무를 대외협력팀 또는 국제협력실로 이관(서울대는 '03 입학처로 다시 복귀)하여 실시하였고, 외국인 학생에게 언어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타 대학들도 해외박람회 등의 참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교육부의 정책 발표가 도화선이 되어 외국인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표는 국내 외국인 학생 증가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인 학생의 증가는 특정국가 및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고른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 유치, 특성화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이라

표 1. 연도별 국내 유학생 증가 현황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유학생수	12,314	16,832	22,526	32,557	49,270

표 2. 2007 출신지역별, 과정별 국내 외국인 학생 수

지역	어학연수	과정별					기타	합계
		이공계	인문사회	자연계	예체능	계		
아시아	13,188	17,640	8,341	2,503	1,756	30,240	2,194	45,622
아프리카	42	83	141	16	1	241	8	291
오세아니아	26	29	36	7	10	82	34	142
북미	472	291	383	78	66	818	402	1,692
남미	56	87	70	8	7	172	12	240
유럽	400	192	254	30	27	503	380	1,283
합계	14,184	18,322	9,225	2,642	1,867	32,056	3,030	49,270

표 3. 2007 출신국가별 국내 외국인 학생 수

국가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몽골	기타	계
유학생 수	33,650	3,854	1,388	2,242	1,047	1,309	5,780	49,270
비율(%)	68.3	7.8	2.8	4.6	2.1	2.7	11.7	100

는 새로운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 “’07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추진

2007년 2월 국가 위상해 비례 낮은 국내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내 입학자원 급감에 따른 유휴 고등교육 인프라 활용 및 국제수지를 개선하며 해외 고등교육기관과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을 발표,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국제화 방안과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수한 외국 고등교육기관 도입 및 교수교류, 공동 연구 활성화

외국의 우수대학 분교 유치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활성화로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를 유치(2007)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2) 학생, 학점 교류 활성화

학생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외국대학에서의 취득학점에 대한 인정범위 제한을 폐지한다.

-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2007.12.18)하여 국내대학이 해외 대학과 고등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국내에서의 수학이 없이도 국내 학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3)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환경 개선

외국인을 위한 기숙사 확대, 의료지원 확대 및 출·입국 지원을 통한 외국어 진행강좌 및 외국인 교수비율을 확대한다.

(4) 고등교육서비스 해외수출 지원

국내 교육기관의 해외 분교 설치시 정부차원의 지원과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외 분교 설치 및 교육과정 이식 그리고 유학생 유치를 확대한다. 또한 정부초청 유학생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 운영하여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 및 외국인 교수비율을 확대한다.

- 외국에 분교 설치 시 교사·교지를 설립주체의 소유로 제한하고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임차를 허용함.
- 2005년 217명이던 정부초청장학생을 2008년 1,000명 그리고 2010년 2,000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기로 함(’08.2월 정부초청장학생 위탁운영 교육기관 20개 대학 선정)

(5)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인프라 구축

국제교류 관련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학 및 유학생 등에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국제화 수준 반영 및 외국분교 등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재외공관, 국제교육진흥원, 한국 학술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KOTRA 등의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 한다.

3) WCU Project

정부는 2007년 “세계적 수준의 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World Class University)”을 발표하고 2012년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진입할 10개 대학교의 국제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 가능한 대학을 10개 대학을 선발하여 연간 1,000억씩 5년간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경우,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는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대학들의 국제화 노력

1) 국제교류 업무부서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화 실시

한국대학의 국제교류 업무는 소수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 대

학에서는 국제교류 업무부서를 신설하고 교환학생, 자매결연 등의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대부분 대외협력처 또는 기획처 내에 국제교류부서를 두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2000년대 초부터 외국인 학생 유치가 화두가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담인력이 배치되고 대학 평가 시 각종 국제화 지표의 배점이 높아지면서 국제교류부서의 인력보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1년 서울대학교와 한양대학교가 처음으로 외국인 특별전형 업무를 대외협력처와 국제협력실에서 실시하였고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Study Korea Project가 시작되면서 외국인 학생 유치 전담부서가 입학처에서 국제교류담당부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국제관련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2006년부터 국제교류부서의 처단위 승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해 2007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

교, 건국대학교 등 주요 사립대학에 국제처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국제교류 업무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어 외국인 교원 및 학생 수가 늘어나고 대학 내에 각종 국제화 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그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해교통대학교와 The Times의 세계대학평가와 국내의 대학평가도 국제교류부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신설된 국제처는 그 모습이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국제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건국대학교의 국제처를 대표적 사례로 뽑을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처는 국제교류팀과 국제지원팀으로 분리되어 국제교류팀에서는 국제업무 기획에서부터 해외 기관과의 자매결연, 학생 파견 및 초청 등의 교류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국제지원팀에서는 외국인 교원과 학생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진행하며 교내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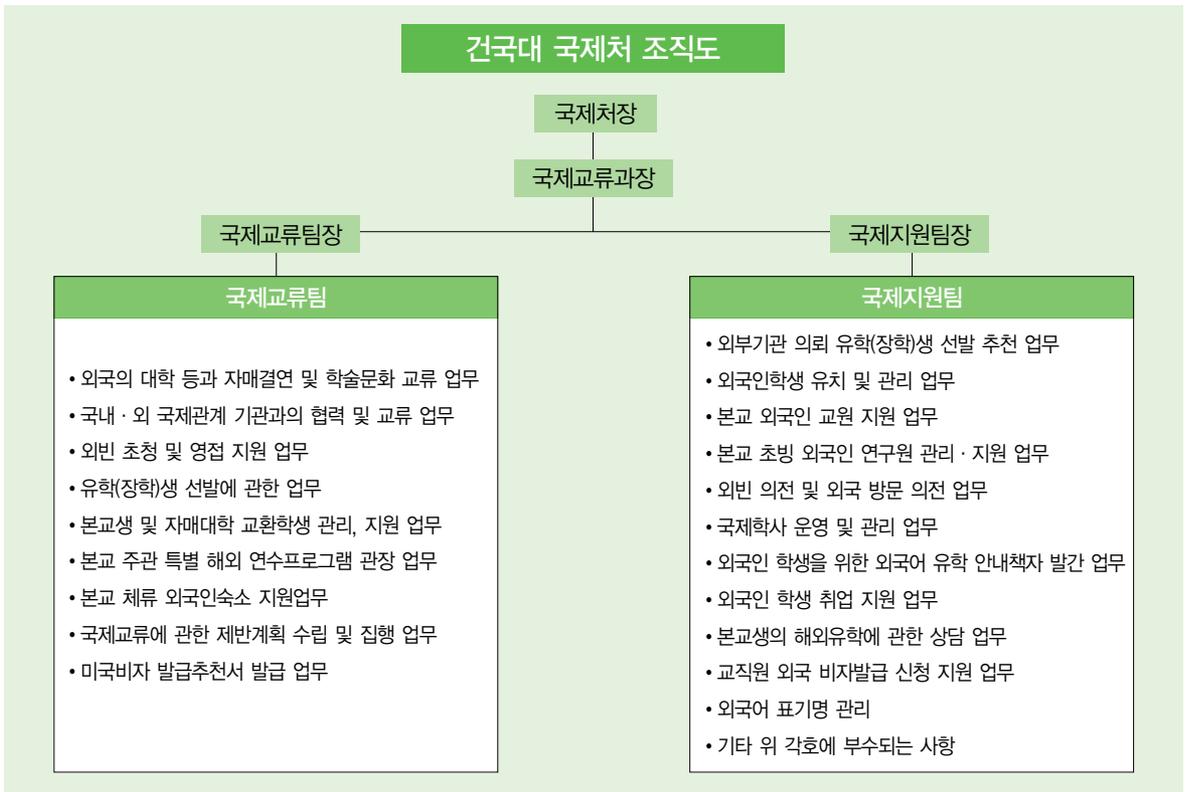


그림 1. 건국대학교 국제처 조직도 및 업무

제업무의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지원팀은 외국인 학생 유치부터 숙소 그리고 상담 및 취업까지 관리하고 있어 외국인 학생들에게 One-stop Service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해외 분교(사무소) 설립 및 국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현재 국내 상당수의 대학들이 해외 현지에 1인 사무실 혹은 지사 설립을 통하여 외국 유학생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홍보 사무실은 상당한 자본 투자가 들어가고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시장조사 및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대학들이 현지 유학원과 연계하여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지 사무소 운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현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양대학교가 2004년 중국 상해에 한양문화원을 개원하여 직원 3명을 파견하고 각종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해 한양문화원에서는 한국어 경시대회, 하계·동계 문화캠프,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한국문화와 한양대학교를 홍보하고 있고 현지에서 유학생 입학시험 및 면접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호서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북과학대학은 중국현지에 1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외 지역에 분교 및 국제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대학은 다수가 있다. 서강대학교는 신설 예정인 파주캠퍼스를 글로벌캠퍼스로 만들어 신입생 전원이 1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외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연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송도국제도시에 입주를 확정짓고, 연세대학교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총 4,000여명을 수용하는 기숙사와 아시아 비교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고, 인천대학교도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대학과의 협력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중국 상해 및 천진에

분교를 설치해 아시아 최대의 경영 교육-연구 허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내·외 분교 및 해외 사무소는 그 설립이 쉽지 않으나 현재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해외 사무소가 대학의 국제화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3) 영어전용강좌 운영 및 교내 영어 사용 공간 확대

국내대학들의 국제화 노력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영어전용강좌 증설, 국제기숙사 및 영어전용사용 공간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 외국인 교원 임용을 들 수 있다. 2004년 고려대학교가 발표한 Global KU Project에서 2010년까지 전체 강의 중 영어전용강좌를 50%까지 높인다는 계획과 더불어 영어전용강좌 실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에서는 Study Korea Project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각 대학의 영어전용강좌 확대 계획을 접수하여 매년 5개 이내 대학을 선발하여 연간 4,0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며 영어전용강좌 증설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영어전용강좌는 고려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이 전체 교과과정 중 30%이상 과목을 영어전용강좌로 운영하며 그 비율이 가장 높고 한양대학교도 2008년 4월 현재 18%까지 영어전용강좌 비율을 높인 상태이다.

이밖에도 각 대학들은 글로벌 캠퍼스 운영, 글로벌 라운지 등을 운영하며 캠퍼스 내 국제화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노력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국내대학의 공대생들 모두가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국제공학 교육원'을 세울 예정
-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08년 3월 총 7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어전용기숙사인 글로벌비움(Globee Dorm)을 개관
- 고려대학교는 세종캠퍼스를 학생 및 교수, 직원의 50%를 외국인으로 선발하는 영어고용 국제화캠퍼스, 보딩(Boarding)캠퍼스로 만들 계획

- 경희대학교는 수원캠퍼스를 ‘국제캠퍼스’로 명칭을 바꾸고, ‘GCC(Global, Competent, Creative) 몰입 프로그램’을 고안, 학생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등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세계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배출할 예정

이처럼 국내 대학들은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국제화 수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국제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제화와 상응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Ⅲ. 대학의 국제화 발전 방향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정부와 각 대학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는 각 부처들의 의견을 모아 국제화 발전 전략을 수립·진행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국제화를 위한 조직을 정비하고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

외에 교육과정을 수출(광주과학기술원: 베트남 대학에 교육과정 수출, 10만 불)하기도 하고 반대로 해외 명문대학의 커리큘럼을 도입(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MIT의 MBA과정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해외대학에 편입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국내대학과 해외대학에서 복수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도 여러 대학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학위와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최근 개정된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2007.12.18)에 따라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정부 및 본교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의 추진내용과 국내 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방안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종합적인 발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대학별로 특성화된 교육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교원, 학생, 직원 등 대학 구성원이 국제화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3) 좀 더 우수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외국인 선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림 2. 국내 고등교육의 국제화 방안

- 4) 지역별 외국인 공동 숙소 설립, 해외 네트워크 공유 등 대학 간 인적/시설 인프라를 공유해야 한다(전문대 + 4년제 대학 간의 교류 강화 등).
- 5)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학,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교사 양성 등의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 6) 미주,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아직 연계가 부족한 지역의 해외대학과 학술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7) 각종 국제 평가 및 인지도 증가를 위해서 해외 마케팅 강화는 필수적이다.
- 8) 정부(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지식경제부)와의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IV. 맺으면서

지금 전 세계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은 Bologna Process를 통해 EU간의 교육체계를 맞추고 상호 교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국제화의 노력들을 이런 해외 정부 및 대학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획기적으로 내놓은 'WCU Project'도 해외 정부의 투자액과 비교하면 규모가 결코 큰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우리나라와 똑같은 이름의 WCU(World Class Universities) Project를 10년 전인 1998년에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다. 해외 유수의 10개 대학을 싱가포르로 유치하여 21세기 싱가포르를 아시아 교육의 허브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 결과로 미국의 Warton School, Johns Hopkins, MIT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있고 유럽의 Insead 등의 분교를 유지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싱가포르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그 결과 단 3개 밖에 없는 싱가포르의 대학(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싱가포르 경영대학)은 모

두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는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대만과 말레이시아까지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여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IDP Australia 는 2025년 전 세계 국제교육시장의 수요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그에 따른 경제효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유학수지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으로서 한국대학의 국제화는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과 동시에 국가의 경수지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정부와 대학들은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화 부문 성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유학생 5만 명 유치 계획은 2008년 초기 달성될 것으로 보이고 영어전용 강좌, 외국인 교원 수 등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해외대학과 복수학위 등의 교육과정 공동운영과 해외 분교 설립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이 국제화의 과도기에서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좀 더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모습으로 정부와 각 대학들이 노력한다면 70년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많은 대학을 배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참 · 고 · 문 ·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자료. 내부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4). Study Korea Project.
- 이병식 외 (2004). "대학교육의 국제화, 선진화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학(2007) "세계대학 순위평가 방법의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필 · 자 · 소 · 개

이기정

한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국제협력실 실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음문학회 회장으로 활동중이다.